

한국 여성의 군사화: 간호장교의 정체성과 역할, 의식

- 군대경험의 가족역할의식과의 관련성 중심으로 -

권 인 숙(명지대학교 조교수)

간호장교는 가장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다움을 지향하는 조직인 군대에서 돌봄 노동이라는 여성에게 주로 기대되는 노동을 하는 여성 집단이다.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군사학을 3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일정 수준의 군사훈련을 받고, 장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입증해야 하며, 군대에서 남성들과 일정한 세력을 겨루어야 하는 집단이다. 이념성에 있어서도 군인장교로서 국가의 이념과 주의를 절대 신봉해야 하는 의식을 내면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연구는 이들의 이러한 복합적 의식과 다양한 정체성과 역할경험이 여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18명의 전직 간호장교와의 심층 인터뷰와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간호사와 군인으로서 역할갈등이나 성(性)적 차이가 어떻게 군대라는 공간에서 타협되고 실천에 옮겨지며 간호장교의 경험이 결혼이나 자녀 양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간호장교들은 군대의 어머니, 누나로서의 역할의식을 가지고 군대병원과 관련된 모든 사무적일과 간호사로서의 돌봄 노동을 전담한다. 그러나 장교집단에서의 지위와 권위유지를 위해 장교라는 집단적 자부심을 키워나가고 돌봄의 대상인 사병과의 관계에서도 계급적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 남성적 계급질서와 타협하고 남성성을 키워나간다. 이들은 군대라는 공간에서 남성적 권위와 여성적 역할을 타협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결합능력은 결혼과 육아의 문제에서는 적극 활용되지 못한다. 군대의 육아보조정책이 미미하고 빈번히 옮겨 다녀야 하는 현실에 대한 정책 변화의 추구는 집단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왔다. 또한 남편과의 가사노동분담이나 역할변화에 대한 기대나 추구보다는 아내로서 마땅히 공급해야 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죄의식을 주로 나타냈다. 장교로서의 남성장교와의 동등함을 꾀하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가족 내에서 역할의 변화나 국가의 육아정책에 대한 변화추구는 거의 없었다. 순응만을 허락하는 국가와 군대조직의 특성이 이런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변화를 주도하는 개체로서보다는 국가와 군대를 위하여 주어진 기능을 하는 변화의 주도권이 없는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족 내 여성적 역할에 대한 보수성과 관련이 크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군대 내에서 돌봄 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경험이 결혼관계속에서의 역할변화에 대한 욕구발생을 막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이 군대라는 남성적 공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남성에 준하는 지위를 추구하면서 얻어지는 경험이 바로 결혼관계에서의 여성의식의 성장과 역할변화를 동반하지는 못하는 데는 국가의식과 군대의 조직경험 그리고 역할경험 모두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